【비평논문】

奉天軍閥 시기의 東三省 화폐제도*

董昕**

번역 : 조정은*** · 홍영미****

국문초록

奉天軍閥 시기 북중국의 화폐 제도는 매우 복잡하였다. 이는 당시 중국 화폐의 혼란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중국의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통화는 銀 본위제와 銅 본위제 두 종류로 나뉜다. 또한 이는 각각 경화와 지폐로 나뉘며 서로 다른 지역에서 순환되었다. 더욱이 비록 양은 적으나 상인이 사적으로 발행한 많은 종류의 통화가 존재하여, 제한된 지역에서 순환되었다. 외국 통화의 경우 북중국에서는 주로 러시아 루블과 일본 화폐가 사용되었다. 이 둘은 역시 銀 본위제와 金 본위제로 나눌 수 있다. 북중국 화폐 제도의 혼란이 생겨난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우선, 금속 화폐와 지폐가 같은 기간에 섞여서 사용되었고 또한 銀兩과 銀元이 섞여서 사용되었다. 또한 통화 발행권의 분산과 과도한 발행, 외국 통화 시스템의 침범, 국제적인 재정 상황의 변화 및 그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주제어 : 화폐 제도, 북중국, 奉天軍閥시기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일부는 동북아역사재단과 일본국제문화연구센터 공동주최의 국제학회, '한일 상호인식 : 이동과 시선, 1910~2010'(교토 : 일본국제문화연구센터, 2010. 12)에서 발표되었다. 논평을 해준 스즈키 사다미(鈴木貞美)선생에게 감사드린다.

**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日本 東京大學 東洋史硏究室 박사과정

**** 경희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

www.kci.go.kr

奉天軍閥 시기 東三省의 화폐종류는 대단히 복잡하므로 본고에서는 대략적으로만 살펴보겠다. 당시의 저작에서는 "東三省의 화폐제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혼란스러웠는데, 銀을 본위로 하는 것, 金을 본위로 하는 것, 개인의 신용을 본위로 하는 것, 지폐를 본위로 하는 것 등이 있었다. 유통되던 鈔票도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것, 지방은행에서 발행한 것, 각 省·市에서 발행한 것, 사설 銀號에서 발행한 것, 각 銀 제련소에서 발행한 것이 뒤섞여 있어서 무엇을 써야 옳은지 알 수 없었다."고 묘사하고 있다.[1] 각종 화폐의 유통구역도 일치하지 않았다. 奉天省(지금의 遼寧省) 城 안과 각 縣·鄉은 모두 奉票를 본위로 삼고 있었다. 吉林省 안에서는 吉林官帖을 본위로 삼았지만, 城 안에서는 永大洋을 겸용하고 있었고 長春에서는 永大洋과 哈大洋을 겸용하고 있었다. 또 黑龍江省 경내의 齊齊哈爾과 哈爾賓, 그리고 그 주변의 각 縣은 모두 哈大洋을 본위로 삼았지만, 黑龍江省 안에서는 黑龍江官帖을 본위로 삼고 있었다. 黑龍江 지역은 清末民初에도 루블을 사용하다가 러시아혁명 후 일본 金票의 침입을 받았다. 일본이 점거한 旅順과 大連, 그리고 金州 등의 關東州 및 滿鐵 부속지는 모두 일본 화폐를 본위로 삼고 있었지만, 旅順과 大連 두 곳은 중국인 사이의 교역에서는 小洋을 본위로 삼았다.[2] 필자는 당시 사용된 화폐를 중국화폐와 외국화폐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단, 화폐제도의 변천에 대해 서술할 때에는 清末로 거슬러 올라간다.

一

東三省의 통용화폐는 銀 본위와 銅 본위로 양분되고, 경화와 지폐로 다시 나눌 수 있다.

www.kci.go.kr

1) 连浚造, 1971,『东三省经济实况揽要』, (台)传记文学出版社, 313쪽.
2) 1928,「东三省之货币」,『银行周报』12권 29호, 银行学会.

銀 본위의 경화로는 각종 말굽은과 大銀元 및 小銀元이 있다. 東三省에 통용된 銀은 각종 大翅寶으로 각 은괴의 중량은 약 53.5兩이었다. 각지의 市平은 수십 종류가 있었는데, 종류마다 銀 함량과 중량이 서로 조금씩 달랐다. 주요 大翅寶로는 營平, 沈平, 鎭平, 寬平, 吉平, 江平 등의 6종이 있다. 營平銀은 營口에서 사용한 市平으로 銀 함량이 992였다. 營口爐銀은 교역에 사용한 虛銀兩으로, 각 은괴가 몇 元 인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었다. 沈平銀은 奉天省 전 지역에서 통용되었고, 鎭平銀은 安東(지금의 丹東)의 市平으로 銀 함량은 비교적 낮았다. 寬平銀은 長春에서 사용한 市平이며, 吉平銀은 吉林省 경내에서 사용하던 平이고, 江平銀은 黑龍江省 城 안에서 사용되던 平이다. 庫平銀 1,000兩과 비교해보면 營平은 34.27兩・沈平은 36.1兩・鎭平은 23.56兩・寬平은 42.4兩・吉平은 39兩・江平은 33.69兩 적었다. 통용된 각종 大銀元 중에서는 袁頭銀元이 가장 보편적이었고, 北洋軍閥이 주조한 銀元도 통용되고 있었으며, 각지에서 여전히 奉天造幣廠 및 吉林造幣廠[3]이 淸末에 주조한 銀元을 사용하고 있었다. 大銀元 1元의 무게는 庫平銀 7錢 2分으로 制錢 1,000文에 상당하는 것이었고, 6錢 4分 8厘의 純銀을 함량하고 있었다. 한편, 淸末民初에 東北 사람들은 大銀元 외에 小洋, 즉 小銀元도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五角, 二角, 一角, 그리고 五分 등 4종류가 있었고 시장에서 유통된 수량이 大銀元의 두 배를 넘었다. 小銀元은 銀으로 만든 보조 화폐인데 五角의 무게는 庫平銀 3錢 6分으로 制錢 500文에 상당한다. 二角의 무게는 庫平銀 1錢 4分으로 制錢 200文에 상당한다. 一角의 무게는 庫平銀 7分 2厘로 制錢 100文에 상당한다. 五分의 무게는 庫平銀 3分 6厘로 制錢 50文에 상당한다. 초기에 주조한 小銀元은 銀 함량이 비교적 높아서, 제1차 세계대전 시기에 민간에서 그 일부를 녹여 말굽은으로 만든 것이 해외에 팔리거나 남방의 각 省으로 유입되었다. 후기에 주조한 小銀元의 銀 함량은 초기에 주조한 것에 비해 낮다.

3) 奉天造币厂 및 吉林造币厂은 모두 1901년에 세워졌다. 北洋军阀 시기, 각지 造币厂은 각 省 당국의 통제를 받았는데, 北京政府 시기에는 간섭할 여력이 없었다. 耿爱德 著(蔡受百 訳), 1929,『中国貨幣論』, 商務印書館, 413쪽.

www.kci.go.kr

銅 본위의 경화로는 制錢과 銅元이 있다. 制錢은 각 枚의 중량이 1錢 4分이고, 일반적으로 1吊는 1,000枚이다. 실제 사용 중인 制錢의 부족으로 인하여 制錢 제도의 붕괴현상이 나타나 制錢 1枚가 사용 시에는 그 것의 몇 배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니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화폐로 東錢과 中錢이 있다. 東錢은 160枚가 1吊이며 奉天省 안에서 사용되었다; 中錢은 500枚가 1吊이며 吉林省과 黑龍江省에서 사용되었다. 制錢 부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造幣廠은 銅元을 주조하기 시작하였다. 制錢 10매, 20매에 상당하는 銅元 등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東三省에서 사용된 銅元의 대다수는 奉天造幣廠에서 주조한 것이었다. 그것과 서로 대응되는 것은 銅元으로 바꿀 수 있는 銅元票였다. 시장에서 잔돈이 부족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奉天公濟平市錢號는 1919년부터 銅元票를 발행하였다.[4] 하지만 교환해 줄 현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銀元을 銅元으로 교환한 수가 銅元票로 교환했을 때의 매수보다 더 적었다.

銀 본위의 지폐로는 奉小洋票, 奉大洋票, 永大洋票, 哈大洋票 등이 있다. 지폐의 사용은 東三省의 화폐 유통 가운데 중요한 지위를 점하지만, 각지의 각종 지폐 유통 상황은 일치하지 않았다. 吉林·黑龍江 두 省에서는 銀 본위의 지폐 외에도 中錢을 본위로 하는 官帖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 우선 그 변천과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東三省에서 사용된 지폐 중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奉票였다. 奉天軍閥 수령인 張作霖은 먼저 奉天省을 점거한 뒤 점차 그 세력을 吉林省과 黑龍江省으로 넓혀나갔고, 그에 따라 奉票도 東三省의 주요 화폐가 되었다. 奉票는 주로 奉小洋票와 奉大洋票를 가리킨다. 각종 小洋票는 1906년부터 발행되어 유통 중인 통화의 부족을 보충하였다. 奉小洋票는 처음에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었고, 일본인은 사용을 거부했지만, 당시 東三省 총독 趙爾巽과 일본 三井洋行이 협의를 거친 후 합의를 보았다. 三井洋行은 奉小洋票를 받기는 하되 환전해 주지는 않고 官銀號 계좌로 이체한다. 官銀號는

www.kci.go.kr

4) 呈东北政务委员会, 1931,『东三省金融整理委员会报告书』, 呈东北政务委员会, 67~72쪽.

부동산을 담보로 삼는다. 이 방법은 1912년 취소되었고, 奉小洋票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小洋票는 처음에는 자유롭게 小銀元으로 바꿀 수 있었으나, 후에 발행액이 現小洋을 훨씬 초과하자 교환이 제한되었고, 나중에는 교환이 정지되었다. 1916년 12월, 奉天省은 본위를 大洋으로 바꾸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小洋 1元 2角이 大洋 1元에 상당하는 비율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5] 小洋票는 1919년부터 회수되어 소각되었고, 1922년에 이르면 대부분이 회수되어 기본적인 작업은 일단락되었으나, 시장에서는 소량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었다. 본위를 大洋으로 바꾼 후, 일부 銀行號는 1917년 8월부터 現大洋 兌換券을 발행하기 시작했고, 東三省官銀號도 現大洋 兌換券 1,000萬元 어치를 발행하였다. 하지만 현금으로 교환하기 곤란해지자 現大洋券은 1921년에 회수되었다.

奉大洋은 주로 匯兌券을 가리킨다. 大銀元을 본위로 하여 1917년 발행을 시작하였다. "奉天省 城 안의 中國銀行, 交通銀行, 東三省 官銀號 세 곳에서 발행한 匯兌券, 奉天興業銀行이 발행한 4厘 채권을 통틀어 奉大洋票라고 부르며, 본위 화폐로 삼고, 모두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았다".[6] 환전상들은 대부분 송금을 조장한다는 핑계로(타지로 송금할 때는 반드시 大洋을 써야함) 現洋을 교환해주었기 때문에, 官銀號 지배인 劉尙淸은 山西 票號의 환어음의 특징을 차용한 匯兌券을 발행하여 대량 예금 인출 사태를 완화시켰다. 발행자가 上海에서 現銀을 저축하여 어음의 밑천으로 삼으면 새 匯兌券을 발행하였는데, 1元은 銀 7錢 2分에 상당하였다. 상인은 이 匯兌券을 가지고 上海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었고, 현지에서는 現銀의 당좌 이체도 할 수 있었지만, 奉天에서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었다. 다음해 1월, 省 정부는 奉大洋을 奉天省의 법정 화폐로 규정하였다. 匯兌券 발행액은 東三省 官銀號가 가장 많았고, 奉天에 있는 中國銀行과 交通銀行의 분점에서도 발행하고 있었다. 興業銀行과 東三省銀行은 1924년에 東三省官銀號에 합병되면서 발행

www.kci.go.kr

5) 辽宁省档案馆编, 1990, 『奉系军阀档案资料汇编』 第一册, 江苏古籍出版社 · 地平线出版社, 628쪽.
6) 中国人民银行总行参事室编, 1986, 『中华民国货币史资料』 第一辑, 上海人民出版社, 695~696쪽.

권도 소멸되었다. 匯兌券 발행은 송금을 중시하고 환전을 경시하겠다는 뜻이었다. 공시가격으로는 1元이 小洋票 1元 2角으로 교환되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약간 비쌌다. "奉票毛荒"이란 주로 匯兌券이 과다로 발행되고 奉軍이 군사상 계속해서 패배하면서, 奉票의 가격이 대폭으로 하락한 것을 말한다. 現洋 1元을 奉票로 교환한 가격은, 1924년 8월 상순에는 1.5元이었다가 12월에는 이미 2元이 되었다. 1925년 상반기에는 2元정도였다가, 그 해 겨울 郭松齡이 배반한 후에는 2.81元으로 폭락하였다. 1926년 초에도 가격은 계속 떨어졌고, 하반기에 奉軍이 중원을 확실히 점거하면서 가격이 약간 올랐지만, 12월에 張作霖이 安國軍 총사령으로 취임할 때 奉票의 가격은 11元 정도로 떨어져 있었다.[7] 1927년 7월경에는 奉票의 가격 하락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奉天省長公署는 할 수 없이 각 縣에 전령을 내려 토지세 등 항목의 세수를 現洋으로 징수할 수밖에 없었다.[8] 1928년 1월 5일, 奉票는 16.6元으로 거래를 시작했지만, 張作霖이 北京으로 부임한 후 奉天에서 경비를 조달하여 체불임금과 포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월말에는 곧 31.8元까지 폭락하였다. 1929년 2월에 이르러 奉天를 現洋으로 바꾼 시장가격은 30元 정도였다. 3월, 東三省官銀號는 액면가가 50元과 100元인 匯兌券을 발행했지만 匯兌券과 現大洋의 가격차 또한 큰 폭으로 하락하여, 가격이 가장 낮을 때에는 奉票 72元을 겨우 現洋 1元과 바꿀 수 있는 정도였다. 공시가격으로는 奉票 60元이 現洋 1元으로 교환되고 있었다.[9] 5월, 東三省 官銀號, 中國銀行 분점, 交通銀行 분점, 그리고 邊業銀行이 연합하여 四行號聯合準備庫를 조성하고, 邊業銀行券을 차용하여 準備庫 인장을 찍은 뒤 現大洋 兌換券으로 만들어 발행하였는데, 이는 주로 東三省에서 유통되었으며, 다달이 지급준비금 점검 상황을 공포하고, 수시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었으므로 금융 정세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www.kci.go.kr

7) 『东三省金融整理委员会报告书』, 75~76쪽.
8) 『奉系军阀档案资料汇编』 第六册, 473쪽.
9) 『东三省金融整理委员会报告书』, 78~88쪽.

吉林省은 吉林永衡官銀錢號가 발행한 官帖을 본위 화폐로 삼았는데, 吉帖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吉林永衡官帖局은 1898년에 설립되었다가, 1909년에 吉林永衡官錢局과 합병되어 官銀錢號로 개칭하였다. 吉林永衡官銀錢號는 清末에 이미 銀元과 官帖을 발행한 적이 있어서 공금을 대신하여 지불하거나 관군의 봉급으로 지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지역의 화폐 사용 습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취소되었다.[10] 吉林永衡官帖局은 1900년에 소액 官帖을 발행했고, 1908년에는 10吊, 100吊과 같이 액수가 큰 官帖도 발행하였다. 小銀元 1元은 中錢 2吊 200文에 상당했는데, 官帖局은 현금으로 교환하기 원하는 자들에 대하여 현금의 20%를 지급해 주고, 잔돈은 소액 官帖으로 지불해 주었다. 따라서 액수가 큰 官帖은 소액 官帖보다 시장 가격이 조금 높았다. 1911년부터 발행된 官帖에는 현금으로 교환 시 20%만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더 이상 적지 않고, 또 계속해서 발행을 늘렸기 때문에, 결국 官帖의 시장 가격 폭락을 초래하였다. 官帖에 대해 공시된 小銀元의 시장 가격도 어쩔 수 없이 취소되었다.[11] 1913년 2~3월 사이에 官帖의 발행 액수는 8,500萬吊로, 銀元 1,700萬元에 상당하는 액수였다. 그러나 官帖局의 現銀 보유고는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발행액의 1/5 정도였다.[12] 1916년 5월, 北京에서는 中國銀行과 交通銀行의 환전 정지 소동이 일어났다. 吉林省은 現洋이 성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금지시키고, 각종 부세 및 수지를 大洋票로 바꾸어 사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大洋 1元은 官帖 17吊에 상당하였다. 中國銀行 東三省 분점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大洋票를 발행하였다. 吉林永衡官銀錢號도 大洋票를 발행했는데, 永大洋으로 불렸다. 吉林省 내에서는 줄곧 官帖을 사용해왔으므로, 각종 징수금은 비록 銀元으로 계산했지만, 징수된 것은 대부분 官帖이었다.[13] 1917년 永衡

10) 孙敏, 2001,「清达桂将军批文及永衡官帖始衰之因浅述」,『中国钱币』, 中国钱币博物馆; 中国钱币学会, 12쪽.
11) 仲廉, 1932,「吉林官帖之研究(二)」,『银行周报』16권 4호, 银行学会.
12) 仲廉, 1932,「吉林官帖之研究(六)」,『银行周报』16권 14호, 银行学会.
13) 仲廉, 1932,「吉林官帖之研究(八)」,『银行周报』16권 16호, 银行学会.

www.kci.go.kr

官銀錢號는 계획보다 많은 1,000萬元어치의 새로운 官帖을 발행하였다.[14] 官帖을 너무 많이 발행한 탓에 1921년 이후 1元은 官帖 100吊 이상에 상당하게 되었다. 1924년 봄에는 官帖 120吊가 現大洋 1元에 상당했지만, 그해 가을 제2차 直奉戰爭 이후에는 200여 吊로 폭락하였고, 그 후 점차 상승하여 160~170吊에 이르렀으나, 1925년 郭松齡이 奉天軍閥에 반기를 든 후 다시 폭락하였다. 1928년 7월에 現洋 1元은 吉帖 200~300吊와 바꿀 수 있었고, 吉帖의 발행 총수는 30億吊 가량이었다.[15]

黑龍江省 廣信公司가 1904년부터 발행한 官帖은 江帖이라고 불렸다. 江帖은 발행 초에는 3吊가 江平銀 1兩에 상당했고, 2吊 200文은 小銀元 1元에 상당하였다. 1914년 小銀元 1元의 시장 가격은 가을에는 8吊였다가 겨울에는 16吊로 상승하였고, 1919년 봄에는 24吊나 되었다.[16] 이 사실만 보아도 江帖의 발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19년 5월, 哈爾賓地方會議는 루블의 평가 절하와 金票의 확장으로 인해 大洋을 본위로 하여 사용할 것을 결정하였다. 中國銀行 분점과 交通銀行 분점은 匯兌券의 명의로 大銀元을 본위로 삼는 지폐를 발행하였다.[17] 다음해, 두 분점이 이러한 종류의 大洋票는 언제든지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선포하여 신용이 매우 좋았고, 어음 가격도 거의 現大洋 비슷해서 "哈大洋"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1920년 설립된 東三省銀行 또한 大洋票를 발행하였고, 黑龍江廣信公司 또한 이를 모방하였다. 당시 哈大洋票의 발행액은 약 3,000萬元이었는데, 中國銀行과 交通銀行에서 약 1,000萬元어치를 발행했고, 廣信公司의 발행액은 100萬元 남짓이었다. 그 나머지는 모두 東三省銀行에서 발행하였다. 1924년 東三省銀行은 東三省官銀號로 합병되었다. 준비 부족으로 인해 1923년에서 1927년 사이에 哈大洋票를 天津과 上海로 송금하는 환 수수료는 100元당 10元 정도였다. 즉 哈大洋票 1元은 9角보다 조금 더 많은

14) 仲廉, 1932,「吉林官帖之研究(九)」,『银行周报』16권 17호, 银行学会.
15) 1928,「东三省之货币」,『银行周报』12권 29호, 银行学会.
16) 长春中国银行, 1920,「东三省通货调查报告书(二)」,『银行周报』4권 37호, 银行学会.
17) 长春中国银行, 1920,「东三省通货调查报告书(四)」,『银行周报』4권 40호, 银行学会.

哈現大洋로 교환할 수 있었다. 邊業銀行도 1925년에 東北 지방으로 진출한 후 哈大洋을 발행할 권리를 부여받았고, 발행액에도 제한이 없었다. 1927년 후, 哈大洋의 시장 유통량은 4000~5000萬元 사이였다.[18] 1928년 봄, 哈大洋票 1元의 가치는 現洋 6角 5分으로 떨어졌으나, 그 후에 신권 발행을 정지하고 구권을 회수하면서 哈大洋票의 가치는 조금 상승하였다.[19]

비교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통화 외에, 각지에는 私帖이라는 것도 있었다. 私帖이란 官帖에 상대되는 지폐의 일종으로, 민간에서 발행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私帖의 유통은 대체로 한 지역에 국한되므로, 屯帖이나 街帖이라고도 불렸다. 또한 私帖의 대부분이 상점에서 발행된 것이어서 商帖이라고도 하였다. 私帖은 銀帖과 錢帖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奉天省 내에서 小洋은 元단위로 유통되는 것이 많았고 吉林省과 黑龍江省 내에서는 吊단위가 많았다. 私帖은 처음에는 상점 사이에서만 서로 양도하여 사용했는데, 나중에 점차 시장에서 화폐대용으로 유통되었다. 吉林省의 각 縣·鄕에 유통된 私帖은 각 縣마다 많은 경우 30~40萬吊어치, 적은 경우에도 20~30萬吊어치가 있었다.[20] 교통과 무역이 발전함에 따라, 私帖의 유통범위도 점점 확대되는 추세였다. 그러나 私帖은 신용이 좋지 않아서 대부분 소액의 보조 지폐로 사용되었다. 私帖은 官帖 혹은 鈔票와 교환이 가능했고, 官帖 혹은 鈔票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영향으로 가치가 떨어졌다. 吉林省과 黑龍江省 私帖의 가격은 官帖의 영향을 받아 가격이 떨어졌고, 小洋을 본위로 하는 私帖은 奉票 가격에 따라 폭락하였다. 私帖은 또한 남발 혹은 신용 박약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다른 종류의 지폐 및 은행의 兌換券보다 1%~8% 낮았다.[21] 私帖의 발행은 여러 차례 금지되었지만, 민간에서는 이미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현금도 부족했기 때문에 두절할 방법이 없어서 지방 화폐제도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18) 张福全, 1988,『辽宁近代经济史』, 中国财政经济出版社, 319쪽.
19) 1928,「东三省之货币」,『银行周报』 12권 29호, 银行学会.
20) 孔经纬, 1986,『东北经济史』, 四川人民出版社, 173쪽.
21) 静如, 1929,「东三省私帖调查记(二)」,『银行周报』 13권 29호, 银行学会.

二

외국 화폐 중 東三省 경내에서 유통된 주요 화폐로는 러시아 화폐와 일본 화폐가 있는데, 이는 銀을 본위로 삼는 경우와 金을 본위로 삼는 경우가 있었다. 銀을 본위로 삼는 금속 화폐로는 일본 銀元 및 멕시코 銀元 등이 있었는데, 龍洋 및 鷹洋을 사용할 경우에는 5分에서 1角까지의 차익을 지불해야 하였다. 銀을 본위로 삼는 지폐로는 正金銀行에서 발행한 銀券 즉 일본 鈔票가 있었는데 이는 일본 銀元을 본위로 삼았다. 이는 처음 발행했을 때에는 兌換券이었는데, 東北 지방의 화폐를 통일하기 위해서 모색된 것이었다. 이후 통화 팽창으로 인해 고객들이 돈을 찾으려고 몰려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正金銀行의 銀券은 上海規銀으로 바꿀 준비를 하고, 환전하려는 사람들에게 당좌 이체를 요구하였으나, 실제로는 지불하지 못하고 결국 匯兌券으로 전환되었다.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발행한 약 1.5億元의 軍用票는 이후 正金銀行의 銀券으로 교환되었다.[22] 正金銀行의 銀券은 東北 지방과 일본 사이에서 일어나는 무역 거래에 폭넓게 사용되었다. 審陽, 長春, 大連 등지에서 일본인이 경영하는 토산품 무역 회사에서는 무역 중에 正金銀行의 鈔票를 사용하였으며 鈔票의 유통량과 토산품 교역 대금의 총량은 기본적으로 일치하였다.

金을 본위로 하는 루블 동전의 경우 東北 지방의 경내에 유입되는 양은 극히 적었다. 金을 본위로 하는 화폐로는 주로 각종 루블 지폐 및 일본의 正金銀行과 朝鮮銀行에서 발행하는 金票가 있었다. 처음에 각종 루블 지폐는 東北 지역의 북쪽에서 주로 유통되었으나 이후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루블의 가치가 대폭 하락하면서 金票의 세력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확장되었다.

각종 러시아 루블 지폐, 속칭 羌帖은, 華俄道勝銀行 및 沙俄國家銀行, 中東鐵路當局이 발행한 金 루블을 본위로 하는 兌換券이다. 제국 러시아의 중

22) 徐逐实, 1928,「东三省之币制与金融」,『银行周报』, 12권 3호, 银行学会.

www.kci.go.kr

국 침략 세력의 선봉은 華俄道勝銀行로, 1895년 설립되었으며 총행은 러시아의 대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었다. 1898년에는 哈爾賓에 분점을 설립하였는데 모든 사무는 러시아인이 주재하였다. 銀行은 개업 후, 먼저 東淸鐵路(후에 中東路로 개칭) 건설과 관련된 비용문제를 다루었다. 철로가 계속해서 건설되면서, 러시아인이 다수 몰려 들어와 哈爾賓은 점차 제국 러시아의 세력권에 들어가게 되었다. 당시 哈埠에서의 상업 왕래 및 매매의 수납과 지불에는 寶銀 및 銀元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制錢 및 경화는 항상 부족하였다. 관부 및 私人 발행의 지폐 가치가 안정되어 있지 못했던 반면, 러시아의 羌帖은 金 루블(1 金 루블에는 순금 0.77423그램 포함)을 본위로 삼아 수시로 환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점차 東北 지방에서 유통되는 주요 통화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상업이 점차 번성하면서 화폐의 수요도 급증하여, 華俄道勝銀行의 哈爾賓 분점에서는 루블 지폐를 대량으로 발행하여 철도 운임비 및 철도세를 지불하는데 사용하였다. 상점에서는 상품의 가격 표시 및 매매 교역 등에 羌帖를 본위로 삼았으며 奉票의 신용은 羌帖에 미치지 못하였다. 세계 1차 대전 발발 전, 哈爾賓 부근에서 유통된 羌帖은 이미 4000萬 루블에 달하였다.

기타 종류의 羌帖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제정 러시아의 國家銀行에서 발행한 루블은 로마노프 지폐라 불리었는데, 金 루블을 본위로 하며 가장 먼저 東北 지방에 들어온 羌帖이다. 러시아 대혁명이 발발 한 후 성립한 자산계급 임시 정부가 발행한 國債票로는 250루블 및 100루블의 고액지폐 및 20루블과 40루블의 소액권이 있었는데, 이는 케렌스키 루블이라 불리었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지를 받은 옴스크 정부가 발행한 시베리아 국고債券, 즉 시베리아 루블은 속칭 "黃條子"라 불리었는데 500권, 1,000권, 5,000권, 10,000권 루블 등 여러 종류가 있었으며 중국 상인의 경우 대부분 사용하고자 하지 않았다. 華俄道勝銀行은 1918년 東淸鐵路 국장인 호르바드의 명령으로 루블 2000萬元을 발행하였는데 이를 호르바드 루블이라 하며 鐵路局이 통제하는 범위 내에서 강제적으로 유통되었다.[23] 이러한 몇 종

류의 루블이 유통된 시기는 길지 않으며 가치 또한 비교적 낮았다. 1922년 소비에트 연방이 새로운 國家銀行을 설립한 후에는 새 루블이 발행되어 1922년 말에 東北 지역에 유입되었으나 시장에서는 유통되지 못하고 錢莊에서만이 환전할 수 있었다.

1905년, 北京정부는 일본과 "中日會議東三省事宜條約"을 체결하고 일본이 奉天, 營口, 安東에 조계지를 정하고 安奉鐵路 등을 경영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正金銀行은 처음에는 東北 지역에서 銀을 본위로 하는 지폐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1907년 주변의 銀 가격 하락으로 인해 東北 지역의 일본 회사 및 이주민들이 金 본위의 화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대량의 금화 및 金票를 들여와 正金銀行에서 발행한 鈔票의 유통 및 사용에 차질이 발생하자, 1913년부터는 金票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朝鮮銀行은 東北 지역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 처음에는 金票 속칭 老頭票를 발행하였다. 1913년 東北 경내에 朝鮮銀行 분점을 설립한 후에는 金票의 유통이 더욱 확대되었다. 1917년 朝鮮銀行의 金票가 강제로 통용되면서, 金票는 東北 지방의 일본 租借地 및 南滿鐵路, 남만철로 근처에서 "법정 화폐"가 되었다. 1916년 6월에는 奉天財政廳이 朝鮮銀行에 돈을 빌리면서 "무릇 奉天省의 납세, 공금은 일체 朝鮮, 正金 두 銀行의 지폐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였다.[24] 이로 보아 金票의 당시 지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南滿鐵路·安奉鐵路의 운영 및 그 부속 기관에서는 모두 金票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金票가 빠르게 유통될 수 있었던 조건 중 하나였다. 또한 朝鮮銀行과 正金銀行은 東北 각 지역에 분점을 설립하여 환전이 편리하였기 때문에 金票는 東三省에서 본래의 중국 화폐보다 화폐 유통의 영역에서 매우 크게 활약하였다. 羌帖의 지위가 폭락하자, 金票는 세력을 吉林省과 黑龍江省까지 확장하였다. 1920년 北洋政府 財政部 主事 閻魁와 朝鮮銀行·正金銀行 두 銀行 및 상회의 회원들이 조사 편찬한 "哈埠

www.kci.go.kr

23) 献可, 1958,『近百年来帝国主义在华银行发行纸币概况』, 上海人民出版社, 175~176쪽.
24) 中国第二历史档案馆, 1988,「民国初年日本制造奉天挤兑风潮档案选」,『历史档案』3기, 49쪽.

全市容納各种貨幣一覽表"에 의하면 당시 일본 화폐의 유통량은 이미 시장의 50% 이상이었으며 중국 화폐 現洋은 삼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첫째로는 농산품을 대량 구매하고, 둘째로는 차관을 대량으로 방출하였으며, 셋째로 장사 할 때에 앞 다투어 환전하였다."[25]라는 말에서 일본 화폐가 대대적으로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당시 哈爾賓의 朝鮮銀行과 正金銀行의 분점에서 발행하는 지폐는 매우 적었으며, 銀元의 발행 또한 많지 않아 시장에서는 별로 유통되지 않았는데 이 또한 金票가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東北 지방 당국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위해서 朝鮮銀行과 正金銀行의 분점에서 발행한 哈大洋을 추천하였다. 당시의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 中東路는 은화를 본위로 하는 체제로 바뀌었으며 金票의 북만주에서의 세력 또한 약화되어 奉天 및 滿鐵 부근에서의 지위도 함께 쇠락하였다. 金票의 발행액은 매우 비싸서 1918년에서 1929년 사이에 발행액은 모두 1億元 이상이었다.[26] 또한 金票는 송금·환전할 수 있음에도 실제로는 현금으로 바꾸지 않는 지폐였기 때문에, 그 가격은 奉票의 가치가 하락했음에도 오히려 비싸졌다. "大連, 安東뿐만 아니라 이어서 南滿, 安奉 두 길의 모든 큰 마을과 長春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러하였다. 멀게는 북만주의 哈爾賓 또한 일본의 金票가 깊게 들어와 있어 무릇 학교에 내는 학비, 집주인에게 내는 방세, 상점의 상품 가격 모두 일본 화폐를 법정 화폐로 삼지 않은 곳이 없다."[27] 라는 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三

東三省 화폐제도의 혼란은 당시 중국에서는 비교적 전형적인 현상이었

25) 孔祥贤·张毓昌, 1988,「十月革命后日本在吉黑地区的金融扩张和中国当局的对策」,『民国档案』3기, 102쪽.
26)『东三省金融整理委员会报告书』, 105쪽.
27)『东三省经济实况揽要』, 318쪽.

www.kci.go.kr

다. 東北의 상인 및 백성들은 入關할때 가져온 지폐를 現洋으로 바꾸어야 關內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때문에 奉票 혹은 官帖은 일반적으로 關內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客商이 다른 곳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꼭 화폐를 現洋으로 바꾸어야만 화폐로써 사용할 수 있었다. 두 종류의 화폐는 다른 지방에서 서로 다른 환전 값을 가지기 때문에, 악덕 상인이나 고의적으로 금융계를 혼란스럽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량으로 現洋을 들여와서 각종 금융 풍조를 만들어냈다. 당시의 東三省 화폐제도가 혼란했던 원인을 찾으려면, 필자는 다음의 몇 가지 점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금융 활동 중 일부 요인들은 서로 영향을 미쳤다.

첫 번째로, 銀과 지폐의 병용 및 銀兩과 銀元의 병용은 당시 東三省 화폐제도의 혼란 및 근대 중국 화폐제도의 혼란을 불러 온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19세기 말에 들어서부터 중국에 유통된 화폐는 복잡 다양하였다. 각종 경화 특히 그 중에서도 은화와 지폐의 병용은 환전 문제를 야기하였다. 지폐를 兌換券으로 삼아 현금으로 교환하고자 하는데, 충분한 현금으로 교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銀과 지폐 사이에 가격차가 생겼다. 지폐 발행액과 화폐의 실제 공급량 사이의 차액은 지폐를 무한정 환전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銀과 지폐의 가격차가 점차 커지게 만든 기본 원인이었다. 銀兩 및 銅元은 근본적으로 모두 일정량의 귀금속을 함유하고 있으며 그 유통 영역은 銀兩 및 制錢의 영역을 대체하였다. 銀兩 및 銀元의 병용은 화폐 제도에 있어서 계산시의 혼란을 불러왔다. 각 지역에서 시장 가격이 서로 다르고, 장부에 기록할 때에도 서로 다른 단위를 사용하는데다가 銀兩 및 銀元 색도 서로 달랐기 때문에 각종 경화를 사용하거나 환전할 때 그 계산이 매우 복잡하였다. 東北 지방 각지의 화폐 사용 정황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각지의 서로 다른 종류의 화폐가 함께 사용되는 지역에서도 또한 화폐 제도의 혼란이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둘째, 지폐의 발행권이 분산되어 있었고, 奉天軍閥의 관리 하에 지방 금융 기구가 지폐를 남발한 것도 화폐 제도의 더 큰 혼란 및 통화의 팽창을

www.kci.go.kr

불러온 원인이다. 발행권의 경우, 정부와 관계가 밀접한 官・私 銀行 및 銀號 등이 모두 지폐를 발행할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각각의 銀行과 銀號가 한때의 이익을 탐내 정부의 차관을 구실로 삼아, 가지고 있는 준비금이 얼마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다투어 지폐를 발행하였다. 또한 정부가 지방 금융 기구의 발행권을 이용하여 재정 결핍을 해결하는 한편, 마구 돈을 찍어내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던 점도 지폐의 남발을 불러왔다. 1906년부터 1918년까지 奉天省에서 奉小洋票 및 보조 화폐를 발행한 銀行 및 銀號는 中國銀行, 交通銀行, 興業銀行, 商業銀行, 植邊銀行, 富華銀行 등 여섯 군데의 銀行과 東三省官銀號, 黑龍江官銀號 등 합쳐서 모두 8 곳 이었다.[28] 발행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奉小洋票의 발행량은 점점 늘어나 現小洋의 유통량을 능가하여, 1913년에서 1917년까지 연속으로 몇 번이나 奉小洋의 대량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奉小洋票 또한 어쩔 수 없이 유통 영역에서 퇴출되었다. 匯兌券은 奉天省내에서는 현금화 할 수 없었으나, 그 주요 발행 기관인 東三省官銀號는 1922년 奉直戰爭 후 발행을 늘리기 시작하였다. 奉天軍閥은 매번 奉天省내에서 군사 행동을 크게 벌였는데 奉票가 그 배경이 되었다. 전쟁 시에 대량으로 발행했던 鈔票는 준비금을 충족시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완벽한 관리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전쟁 후에는 보통 화폐 가치가 하락하였다. 또한 통치 위기 및 전쟁에서의 패배로 奉票를 돈으로 바꾸지 못하는 일이 가속화되는 등 악순환이 일어났다.

셋째, 러시아와 일본 양국의 화폐 제도가 들어오면서 東北 지역의 화폐 제도의 혼란은 더욱 심해졌다. 당시 국외의 은행들은 중국에 분점을 설립한 후, 대부분 鈔票를 발행하였다. 羌帖 및 金票는 중국의 화폐 제도와는 다른 외국의 화폐로, 東北 각지에서 사용되면서 원래부터 복잡한 화폐 제도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러시아와 일본 양국의 금융 정세는 東北 지역에서 비교적 강하여, 화폐 가치의 변화 및 의도적인 교란은 모두 東北 지역의 화폐 체제의 안정에 영향을 미쳤다.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한 후 羌帖의 경우

28) 吴振强・尚思丹等, 1992,『东三省官银号奉票』, 辽沈书社, 7쪽.

www.kci.go.kr

金 루블로 교환하지 못하게 되면서, 신용에 동요가 일어나 화폐 가치가 하락하였다. 러시아 10월 혁명 후, 羌帖은 가치가 대폭 하락하여 많은 공상업자가 도산하고 시장은 날로 한산해졌다. 이 때문에 당시 "羌帖이 총에 맞아 상처를 입었다."는 말이 크게 유행하였다. 각종 루블 지폐의 세력은 1920년 전후까지 유지되었다. 1926년 9월 華俄道勝銀行의 도산 소식이 전해진 후 각종 루블 지폐는 즉시 가치 없는 폐지로 변했다. 이로 인해 중국인, 특히 東北 지역의 상인, 백성들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金票의 경우, 처음에는 무역을 통해 東北 지역의 境內에 들어왔다. 朝鮮銀行과 正金銀行이 발행한 金票는 토산품 구매에 사용되면서 중국의 각종 화폐로 교환되었다. 일본 측이 적극적으로 東北 지역의 금융을 관리하려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金票의 세력은 크게 확장되었다. 羌帖의 가격이 대폭 하락하자, 朝鮮銀行은 기회를 틈타 담보 대출을 크게 늘려 金票를 대출해주면서 10의 가치로 7을 저당 잡았다. 대출 경비를 살펴보면, 金票 2元 7~8角이 大洋 1元으로 환전 가능하였다. 그러나 상환할 때에는 金票와 現大洋의 가격이 서로 같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때에는 金票 때문에 손해를 보니 실로 심할 경우에는 羌帖의 열 배에 달하였다."라고 하였다.[29] 1921년에는 일본 쪽이 大連의 특산품 교역에 朝鮮銀行卷을 사용하면서 금은의 비교 가치 변동으로 본 손실이 중국 상인 쪽으로 옮겨 갔기 때문에, 華商 및 중국의 중개인들은 사용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넷째, 국제 금융 정세의 변화로 인해 東北 지역의 화폐 제도의 혼란은 설상가상으로 더욱 심해졌다. 19세기 세계 각국은 영국을 따라 점차 金을 본위로 하는 체제로 바뀌었으나 러시아는 여전히 銀을 화폐로 삼았다. 東三省 각지에서는 대외 무역액이 매년 증가하면서, 대외 무역 중에 루블이나 金票로 결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金을 본위로 하는 화폐 사용이 확대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시에는 유럽 각국이 점차 金을 銀으로 바꿔 중국에서 물자를 구매하면서 국내에 銀 가격이 상승하였다. 이 때문에 奉天에서 小洋은

29) 1921,「各埠金融及商况・哈尔滨」,『银行周报』5권 3호.

예금을 찾으려고 고객들이 몰려드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자 일본인 및 중국의 錢商이 결탁하여 朝鮮銀行의 金票를 小洋票로 바꾸고 이를 다시 現小洋으로 바꿔 몰래 大連으로 가지고 들어와 녹여서 말굽은으로 만들었다. 이 때문에 유통 중인 現小洋의 부족이 더욱 현저해졌다.[30] 1920년대 세계적인 銀 가치의 하락은, 金票가 東北 지역에서 더 많이 유통되게 된 원인이었다.

이처럼, 奉天軍閥 시기의 東三省 화폐 제도의 혼란에는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존재하였다. 화폐 제도와 금융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화폐 제도의 혼란은 금융 불안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당시 東三省의 통치자는 張作霖을 지도자로 하는 奉天軍閥로, 어느 정도 금융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하였다. 이에 東三省 화폐 제도의 혼란은 개선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당시 중국 화폐 제도의 혼란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축소판이 되었다.

www.kci.go.kr

30)『中华民国货币史资料』第一辑, 1023쪽.

【비평논문】

奉系時期的東三省幣制

奉系時期, 東三省的貨幣种類紛繁夏雜, 僅能略述。当時之人在著作中描述："東三省之幣制混乱于不可名状, 有以銀為本位者, 有以金為本位者, 有以个人信用為本位者, 有以紙幣為本位者。其流通之鈔票, 有為中央銀行所発行者, 有為地方銀行所発行者, 有各省市所発者, 有私人銀号所発者, 有各炉戸所発者, 紛然雜陳, 莫衷一是。"[1] 各种貨幣的流通区域也不尽一至：在奉天省(今遼宁省)城及各県各郷皆以奉票為主幣。吉林省内地以吉林官帖為主幣, 省城則兼用永大洋, 長春兼用永大洋与哈大洋。黒竜江省城斉斉哈爾、哈爾浜及周邊各県皆以哈大洋為主幣, 黒竜江内地則以黒竜江官帖為主幣。黒竜江地区在清末民初之際還使用盧布紙幣, 俄国革命后日本金票的勢力侵入。在日本勢力控制下的旅順、大連及金州等地(又称関東洲)及満鉄附属地, 皆以日本金票為主幣。但在旅順、大連両地, 中国人相互間的交易又以小洋為本位。[2] 筆者将当時使用的貨幣分為本国貨幣与外国貨幣介紹如下。在述及幣制演変時, 前溯至清末。

一

東三省通用貨幣分為以銀為本位和以銅為本位両种, 并有硬通貨与紙幣之分。

銀本位的硬通貨有各种宝銀、大銀元和小銀元。東三省通用的銀両為各种大翅宝, 每錠約重53.5両, 各地市平有几十种, 在成色与重量上略有不同, 最主要的有営平、沈平、鎮平、寛平、吉平、江平等六种。営平銀是営口所用的市平, 成色為九九二, 営口炉銀是交易中的虚銀両, 价格為每錠合多少元。沈平銀通行于奉天全省。鎮平銀是安東(今丹東)的市平, 成色較低。寛平銀是長春

www.kci.go.kr

1) 連湊造：≪東三省経済実況攬要≫, (台)伝記文学出版社, 1971年, 第313頁。
2) ≪東三省之貨幣≫, ≪銀行周報≫, 12巻29号, 1928年7月31日 。

所用市平。吉平銀為吉林省城所用之平。江平銀為黒竜江省城所用之平。与千両庫平銀相比，営平少34.27両，沈平少36.1両，鎮平少23.56両，寛平少42.4両，吉平少39両，江平少33.69両。通用的各种大銀元以袁頭銀元最普遍，北洋所鋳造的銀元也通用，各地還使用奉天造幣厂及吉林造幣厂[3]在清末鋳造的銀元。大銀元一元重庫平7銭2分，相当于制銭1000文，含純銀6銭4分8厘。除大銀元外，清末民初之季，東北商民還習用小洋，即小銀元，有五角、二角、一角和五分的四种，在市場上的流通数量超過大銀元両倍以上。小銀元是銀質輔幣，五角的重庫平3銭6分，相当于制銭500文；二角的重庫平1銭4分，相当于制銭200文；一角的重庫平7分2厘，相当于制銭100文；五分的重庫平3分6厘，相当于制銭50文。小銀元早期鋳造者成色較高，一戦時有一部分被私熔成銀錠，售往海外或流向南方各省，后期鋳造的小銀元成色較以前鋳造者低。

以銅為本位的硬通貨為制銭和銅元。制銭毎枚重1銭4分，通常毎吊為1000个。因実際使用中制銭欠乏，出現了抹銭制，即制銭一枚在使用中相当于数枚的价値，代表貨幣為東銭与中銭。東銭以160枚合一吊，在奉天省境内使用；中銭以500枚為一吊，行用于吉黒両省。為緩和制銭不敷使用的矛盾，造幣厂開始鋳造銅元，有当十、当二十的銅元等数种，東三省所用的銅元絶大部分是奉天造幣厂鋳造的。与之相対応的則是銅元票，可兌換銅元。為弥補市面小額零鈔不敷使用的情況，奉天公済平市銭号于1919年開始発行銅元票。[4]因兌現不足，以銀元兌銅元数比兌換銅元票的枚数要少。

以銀為本位的紙幣有奉小洋票、奉大洋票、永大洋票、哈大洋票等。紙幣的使用在東三省的貨幣流通中占有重要地位，但在各地，各种紙幣的流通状況并不一致。除以銀為本位的紙幣外，吉黒両省還習用以中銭為本位的官帖，為述其演変過程，只能并述。

東三省使用的紙幣中影響最大的為奉票。奉系軍閥的主要首領張作霖先控

www.kci.go.kr

3) 奉天造幣厂及吉林造幣厂均設厂于1901年。北洋之際，各地造幣厂多受各省当局控制，而北京政府則无実力過問。耿愛徳著、蔡受百訳：≪中国貨幣論≫，商務印書館，1929年，第413頁。

4) 呈東北政務委員会：≪東三省金融整理委員会報告書≫，1931年，第67-72頁。

制了奉天省，并将勢力漸拡充于吉黒，奉票也随之成為東三省最主要的貨幣。奉票主要指奉小洋票和奉大洋票。各种小洋票自1906年開始発行，以補充流通中通貨的不足。奉小洋票最初不兌現，日本人拒絶使用。経当時的東三省総督趙爾巽与日本三井洋行商定后達成協議：三井収奉小洋票不兌，送存官銀号転帳；官銀号以房産作保。此辦法于1912年被取消，奉小洋票開始兌現。小洋票初可自由兌換小銀元，后因発行額大大超過現小洋，兌現受限，進而停兌。1916年12月，奉天全省改用大洋為本位，小洋按1元2角折合大洋一元的比率折合使用。[5] 小洋票自1919年開始収回焚毀，至1922年基本結束，被収回大部分，但市面上仍有少量流通。改用大洋本位后，一些銀行号自1917年8月開始発行現大洋兌換券，東三省官銀号就発行了現大洋兌換券1000万元。因仍受兌現問題的困扰，現大洋券1921年被収回。

奉大洋主要是指匯兌券，以大銀元為本位，1917年開始発行。“奉垣中交両行分行、東三省官銀号三家発行的匯兌券、奉天興業銀行発行的四厘債券統称奉大洋票，為主幣，均不兌現。”[6] 因銭商兌換現洋多以調撥匯款為借口(向外埠匯款必須用大洋)，官銀号総辦劉尚清借用山西票号匯票的特点，発行匯兌券来緩解擠兌風波。発行者在上海存儲現銀，作為匯本，発行新券，每元合銀7銭2分。商民可持此券在上海購貨，就地划撥現銀，但不得在奉兌現。次年1月，省政府規定其為奉省的法定貨幣。匯兌券発行額以東三省官銀号為最多，中国銀行、交通銀行在奉天的分行亦有発行；興業銀行与東三省銀行1924年被合并于東三省官銀号中，発行権消于无形。匯兌券発行之意在于重匯軽兌，官价每元兌換小洋票一元二角，実則略高于此。奉票毛荒主要指匯兌券発行過多，加之奉軍在軍事上連連失利，价格大幅下跌。一元現洋兌換奉票的价格，1924年8月上旬為1.5元，12月時已達2元。1925年上半年在2元左右，冬季郭松齢倒戈之后跌至2.81元。1926年初継続跌落，下半年因奉軍确据中原而价格略升，12月

5) 遼宁省档案館編：≪奉系軍閥档案資料匯編(第一册)≫，江蘇古籍出版社、地平線出版社，1990年，第628頁。

6) 中国人民銀行総行参事室編：≪中華民国貨幣史資料(第一輯)≫，上海人民出版社，1986年，第695-696頁。

www.kci.go.kr

張作霖就任安国軍総司令時，票价竟跌至11元左右。[7] 1927年7月時，因奉票幣値跌落過快，　奉天省長公署不得不電令各県将田賦等項税収折収現洋。[8] 1928年1月5日，奉票以16.6元開市，因張作霖在北京就職后在奉籌款以発欠薪年賞，月底就跌至31.8元。至1929年2月，奉票兌現洋的市价在30元左右。3月，東三省官銀号発行面額為五十元和百元的匯兌券，匯兌券与現大洋的比价又大幅跌落，最低時跌至奉票72元僅可兌現洋一元，官价為奉票60元兌換現洋一元。[9] 5月，東三省官銀号、中国銀行分行、交通銀行分行和邊業銀行聯合組成四行号聯合准備庫，借用邊業銀行券加盖准備庫印，作為現大洋兌換券発行，流通于東北三省，并逐月公布発行准備金検查情況，随時兌現，方使金融形勢穏定下来。

吉林省以吉林永衡官銀銭号発行的官帖為主幣，又称吉帖。吉林永衡官帖局創辦于1898年，1909年与吉林永衡官銭局合并，改称官銀銭号。該号清末曾発行過銀元官帖，可抵交公款及発放官兵軍餉，因不符合当地的貨幣使用習慣而不久就被取消了。[10] 該局1900年発行小額官帖，1908年発行十吊、百吊的大帖，小銀元一元合中銭2吊200文。官帖局対請求兌現者付給現金二成，余則支付給小額官帖，因而大額官帖較小額官帖市价稍高。1911年起，発行的官帖在票面上不再注明兌現二成的字様，且不断増発，造成官帖的市价暴跌，小銀元対官帖的公定行市也不得不取消。[11] 1913年2、3月間，官帖的発行額為8500万吊，　合銀元1700万元，　而官帖局的庫存現銀准備按市价只合発行額的五分之一。[12] 1916年5月，北京発生中交両行的停兌風潮，吉林省禁止現洋出境，并規定各种賦税及収支改用大洋，大洋一元合官帖17吊。中国銀行東三省分行趁机発行大洋票，吉林永衡官銀銭号亦発行大洋票，被称為永大洋。吉林省内因向来使用官帖，　故各种征収的款項雖然以銀元計算，　征収的大部分仍然是官

7) ≪東三省金融整理委員会報告書≫，第75-76頁。
8) ≪奉系軍閥档案資料匯編(第六册)≫，第473頁。
9) ≪東三省金融整理委員会報告書≫，第78-88頁。
10) 孫敏：≪清達桂将軍批文及永衡官帖始衰之因浅述≫，≪中国銭幣≫，2001年第3期，第12頁。
11) 仲廉：≪吉林官帖之研究(二)≫，≪銀行周報≫，16巻4号，1932年2月9日。
12) 仲廉：≪吉林官帖之研究(六)≫，≪銀行周報≫，16巻14号，1932年4月19日。

帖。[13] 1917年, 永衡官銀銭号増発了1000万元的新帖。[14] 因官帖被大量増発, 1921年以后每元合官帖在百吊以上。1924年春, 官帖120吊方合現大洋一元, 而当年秋第二次直奉戦争后, 跌至200余吊, 后漸漲至一百六七十吊, 1925年郭松齢反奉之役后夏跌。1928年7月間, 現洋一元可兌吉帖200余吊至300吊, 吉帖発行総数在30亿吊左右。[15]

黒竜江広信公司発行官帖又称江帖, 1904年開始発行。江帖発行之初, 3吊即合江平銀一両, 2吊200文合小銀元一元。1914年秋, 小銀元一元市价由秋季的8吊漲至冬季的16吊, 1919年春竟達24吊,[16] 表明江帖也在不断増発中。1919年5月, 哈爾浜地方会議因盧布貶値, 金票拡張, 決定改用大洋本位, 中交両行分行以匯兌券的名義, 以大銀元為本位発行紙幣。[17] 次年, 中交両分行宣布此种大洋票可以随時兌現, 信誉很好, 票价几与現大洋相等, 故有"哈大洋"之称。1920年設立的東三省銀行也発行大洋票, 黒竜江広信公司亦仿效之。当時, 哈大洋票的発行額約為3000万元, 中交両行約発行了1000万元, 広信公司的発行額不過100余万元, 其余皆為東三省銀行所発。1924年, 東三省銀行被并入東三省官銀号中。因准備不足, 1923年至1927年間, 哈大洋票匯至津滬的匯水, 每100元在10元左右, 即哈大洋票一元合現大洋9角強。邊業銀行1925年進入東北后, 也被授予発行哈大洋的権利, 発行額没有限制。1927年后, 哈大洋的市面流通量在4000至5000万元間。[18] 1928年春, 哈大洋票跌至每元僅値現洋6角5分, 后因停発新鈔, 回収旧鈔, 票价略有上升。[19]

除各种使用得較為普通的通貨外, 各地還有私帖。私帖是帖子的一种, 与官帖相対, 在民間発行与使用。私帖的流通大都局限于一地, 故有屯帖、街帖之称。因私帖大多又是商鋪発行的, 又名商帖。私帖可分為銀帖与銭帖, 奉天省

13) 仲廉：≪吉林官帖之研究(八)≫, ≪銀行周報≫, 16卷16号, 1932年5月3日。
14) 仲廉：≪吉林官帖之研究(九)≫, ≪銀行周報≫, 16卷17号, 1932年5月10日。
15) ≪東三省之貨幣≫, ≪銀行周報≫, 12卷29号, 1928年7月31日。
16) 長春中国銀行：≪東三省通貨調査報告書(二)≫, ≪銀行周報≫, 4卷37号, 1920年10月5日。
17) 長春中国銀行：≪東三省通貨調査報告書(四)≫, ≪銀行周報≫, 4卷40号, 1920年10月26日。
18) 張福全：≪遼宁近代経済史≫, 中国財政経済出版社, 1988年, 第319頁。
19) ≪東三省之貨幣≫, ≪銀行周報≫, 12卷29号, 1928年7月31日。

内因小洋通行多以元為単位，吉林、黒竜江両省境内多以吊為単位。私帖初僅在商号間相互転譲使用，后来逐漸在市面上作為代用貨幣流通。吉林各県郷流通私帖，毎県多則三四十万吊，少則亦有二三十万吊。[20] 随着交通和貿易関系的発展，私帖的流通范囲有漸漸扩大的趨勢。但私帖的信誉不好，大都為小額輔幣券。私帖可兌換官帖或鈔票，幣値受官帖或鈔票价格跌落的影響而下跌。吉黒私帖的价格随官帖下跌，以小洋為本位的私帖随奉票价格下跌。私帖夏因濫発或信用薄弱，幣値較其他种類的紙幣及銀行兌換券低1%至8%。[21] 私帖的発行雖然屢次被禁止，但民間已習慣使用，加之現金欠乏，无法杜絶，在一定程度上使地方幣制更加趨于混乱。

二

外国貨幣在東三省境内流通的主要為俄幣与日幣，分為以銀為本位者和以金為本位者。以銀為本位者的硬貨為流入的日本銀元、墨西哥銀元等，竜洋及鷹洋在使用時皆須貼水5分至1角。以銀為本位的紙幣是正金銀行発行的銀券，又称日本鈔票，以日本銀元為本位。它発行之初是兌換券，并力図以此謀求東北地区幣制的統一。為避免擠兌，正金銀券以上海規銀為兌換准備，対請求兌換者進行転帳，不作実付，就転化為匯兌券的性質了。日本在日俄戦争期間発行了約1.5亿元的軍用票,[22] 后以正金銀券兌換。正金銀券在東北与日本之間的貿易中被广泛使用。沈陽、長春、大連等地日本人経営的土特産品交易所在交易中使用正金鈔票，鈔票流通量与土特産品交易价値量基本一致。

金本位的盧布硬幣流入東北境内的极少。以金為本位的貨幣主要是各种盧布紙幣和日本正金銀行、朝鮮銀行発行的金票。其流通情况初為各种盧布紙幣

20) 孔経緯：≪東北経済史≫，四川人民出版社，1986年，第173頁。
21) 静如：≪東三省私帖調査記(二)≫，≪銀行周報≫，13巻29号，1929年7月30日。
22) 徐逐実：≪東三省之幣制与金融≫，≪銀行周報≫，12巻3号，1928年1月17日。

www.kci.go.kr

通行于東北北部地区, 后因受俄国革命的影響, 盧布紙幣大幅貶値, 金票的勢力由南向北逐漸拡張。

各种俄国盧布紙幣俗称羌帖, 泛指華俄道胜銀行、沙俄国家銀行和中東鉄路当局発行的以金盧布為本位的兌換券。帝俄侵華勢力的先鋒是華俄道胜銀行, 創建于1895年, 総行設在俄都圣彼得堡, 于1898年在哈爾浜設立了分行, 一切事務都由俄人主持。該行開業后, 先為東清鉄路(后改称中東路)辦理有関筑路款項事宜。随着鉄路不断修建, 大批俄人涌入, 哈爾浜遂成為帝俄勢力的領地。当時, 哈埠的商業往来及買売収付多使用宝銀、銀元及制銭、銅元, 硬通貨常常欠乏。因官府及私人発行的紙幣幣値不穏定, 而俄人的羌帖以金盧布(每一金盧布含純金0.77423克)為本位, 可以随時兌現, 逐漸成為流通于東北地区的主要貨幣之一。商業逐步繁盛后, 対貨幣的需求量大増, 華俄道胜銀行哈爾浜分行遂大量発行盧布紙幣, 用以支付鉄路運費, 交捐納税。商店的貨物標价、買売交易等, 均以羌帖為本位, 奉票的信用反而不及羌帖。一戦前, 僅流通于哈爾浜附近的羌帖就已達4000万盧布。

其他种類的羌帖如下：帝俄国家銀行発行的盧布被称作羅曼諾夫紙幣, 以金盧布為本位, 是最早流入東北的羌帖。俄国大革命爆発后成立的資産階級臨時政府発行的国債票, 有面額為250盧布和1000盧布的大帖及面額為20和40盧布的小帖, 又称克倫斯基盧布。受各帝国主義国家支持的鄂木斯克政府発行西伯利亜国庫債券, 又称西伯利亜盧布, 俗称黄条子, 面額有500、1000、5000和10000盧布的数种, 華商多拒絶使用。華俄道胜銀行1918年還奉東清鉄路局長霍爾瓦特之命発行盧布2000万元, 被称為霍爾瓦特盧布, 強制在鉄路局控制范囲内流通。[23] 這几种盧布的流通時間都不長, 幣値也較低。1922年蘇聯新的国家銀行成立后, 発行新版盧布, 年末流入東北, 但在市面上不流通, 僅能在銭庄内兌換。

1905年, 清政府在北京与日本簽訂了≪中日会議東三省事宜条約≫, 允許日本在奉天、営口、安東划定租界地, 経営安奉鉄路等。正金銀行初在東北発行

23) 献可：≪近百年来帝国主義在華銀行発行紙幣概况≫, 上海人民出版社, 1958年, 第175-176頁。

銀本位鈔票，因1907年左右銀价跌落，在東北的日本社団及移民多傾向使用金本位幣，致使大量的金幣和金票流入，阻碍了正金銀券的流通与使用，該行遂于1913年開始発行金票。朝鮮銀行原已発行金票，俗称老頭票，因貿易関系流入東北。該行1913年在東北境内設立分行后，所発金票的流通更加广泛。1917年時，朝鮮銀行的金票被強制通用，成為日本在東北租借地和南満鉄路及沿線的"法定貨幣"。1916年6月，因奉天財政庁向朝鮮銀行借款，"凡奉省一切納税、公款，已准用朝鮮、正金両銀行紙幣",[24] 可見金票在当時的地位。

如前述，南満鉄路、安奉鉄路的運営及其附属机関都要求使用金票，是金票得以快速流通的条件之一。而朝鮮銀行和正金銀行在東北各地遍設分支机构，匯兌便利，金票因而得以在東三省喧賓奪主，在貨幣流通領域内异常活躍。当羌帖的地位一落千丈時，金票趁机拡張勢力于吉黒。据1920年北洋政府財政部主事閻魁与中交両行及商会人員調查后所編的≪哈埠全市容納各种貨幣一覧表≫所載：当時日幣的流通量已占市面的一半以上，中国貨幣連現洋在内還不足三分之一。日幣能大挙侵入，"一是大量収購農産品，二是大量発放貸款，三是大搶匯兌生意。"[25] 当時在哈爾浜的中交両行分行的紙幣発行量很少，銀元数量又少，市面上欠少流通籌碼，也是金票得以趁机拡張勢力的另一主要原因。東北地方当局因有与中央政府合作，　由中交両行分行発行哈大洋之挙。当年，出現了世界性経済危机，中東路改用大洋本位制，金票在北満的流通勢力因而受到削弱，但在奉天及満鉄沿線的地位并未下降。金票的発行額也很高，1918年至1929年間毎年的発行額都在一亿元以上。[26] 又因金票実為匯兌性質的不兌換紙幣，　其价格在奉票貶値后反而上升。"大連、安東既沿南満、安奉二路諸市鎮上至長春則不遑論矣。即遠至北満之哈爾浜，　亦為日本之金票所深入，挙凡学校之学費，房主之租息，商店之貨价，无不視日金為法幣。"[27]

---

24) 中国第二歴史档案館：≪民国初年日本制造奉天擠兌風潮档案選≫，≪歴史档案≫，1988年第3期，第49頁。

25) 孔祥賢、張毓昌：≪十月革命后日本在吉黒地区的金融拡張和中国当局的対策≫，≪民国档案≫，1988年第3期，第102頁。

26) ≪東三省金融整理委員会報告書≫，第105頁。

27) ≪東三省経済実況攬要≫，第318頁。

www.kci.go.kr

三

東三省幣制混乱的状況在当時的中国是比較典型的。東北商民入関時，須将持有的紙幣兌成現洋，方可在関内使用，因為奉票或官帖一般来説在関内是无法使用的。一地的客商到他処采購貨物時，也要将貨幣兌成現洋或当地使用的主幣方可。両种貨幣在不同的地方有不同的兌換价格，奸商或蓄意扰乱金融者就大量搬運現洋，致演成各种金融風潮。探究当時東三省幣制混乱的原因，筆者認為可以従以下几点来分析。在具体的金融活動中，　有的因素是相互影響的。

第一，銀紙并用及両元并用是当時東三省幣制混乱乃至近代中国幣制混乱的主要原因之一。自19世紀末開始，我国流通中的貨幣就趨向夏雑多様。各种硬通貨尤其是銀幣与紙幣并用，就産生了兌換問題。当紙幣作為兌換券不能充分兌現時，銀紙就産生差价。紙幣発行額与貨幣実際供給量之間的差額是造成紙幣无法无限制兌換及銀紙産生差价并逐漸加大的根本原因。銀元和銅元本身都含有一定量的貴金属，在流通領域替代了銀両与制銭的作用。銀両与銀元的両元并用造成貨幣制度在一定程度上計算的混乱；各地又使用不同的市平，記帳単位各不一様，銀両或銀元的成色也不一致，使各种硬通貨在使用和匯兌時計算起来十分夏雑。東北地区各地的貨幣使用情況不尽一致已如前述，各地不同种類的貨幣在使用中的地方性也是幣制混乱的典型体現。

第二，紙幣的発行権分散，奉系軍閥控制下的地方金融机构濫発紙幣造成幣制進一歩混乱及通貨膨脹。以発行権而論，与政府関系密切的官私銀行与銀号，都獲得了発行紙幣的特権。各行号貪図一時之利，以政府貸款為借口，根本不考慮擁有多少准備金，争相発行。而政府則把地方金融机构発鈔当作解決財政拮据和中飽私嚢的“揺銭樹”，造成濫発。1906年至1918年，奉省発行奉小洋票及輔幣的行号就有中国、交通、興業、商業、殖邊、富華六家銀行和東三省官銀号、黒竜江官銀号，共八家。[28] 由于発行没有節制，奉小洋票的発行量大

28) 呉振強、尚思丹等：≪東三省官銀号奉票≫，遼沈書社，1992年，第7頁。

www.kci.go.kr

大超過了現小洋的流通量，致使1913年至1917年間連続数次出現奉小洋擠兌風潮，奉小洋票也不得不退出流通領域。匯兌券在奉天省内是不兌現的，它的主要発行机関東三省官銀号在1922年直奉戦争后開始増発。奉軍歴次大挙入関軍事行動，无不以奉票為后盾。因戦時増発的鈔票都欠乏足够的准備金和完善的管理辦法，在戦后常常発生貨幣貶値的現象。而統治危机和軍事失利又加速了奉票毛荒，形成悪性循环。

其三，俄日両国貨幣体系的侵入加深了東北地区幣制混乱的程度。当時的外国銀行在中国設立分支机构后，大都発行鈔票。羌帖和金票是不同于我国貨幣体系的国外幣种，在東北各地使用使原本已很夏雑的幣制体系更為混乱。俄日両国的金融勢力在東北地区較強，幣値変化及蓄意干扰都影響着東北地区貨幣体系的穏定。羌帖在一戦爆発后停止兌換金盧布，信用即開始発生動揺，幣値下落。十月革命后，羌帖大幅貶値，許多工商業戸因此倒閉，市面日趨冷落。因而，当時有个最流行的詞叫“受槍(羌)傷”。各种盧布紙幣的勢力維持到1920年左右。1926年9月，華俄道胜銀行倒閉的消息伝出后，各种盧布紙幣立即変成廃紙，分文不値，中国人民尤其是東北商民受害尤深。金票最初是随着貿易的発展流入東北境内的，朝鮮銀行和正金銀行発行的金票被用来購買土特産，兌換中国的各种貨幣。日方積极図謀控制東北地区的金融，大力拡張金票的勢力。如羌帖大幅貶値之時，朝鮮銀行趁机大做抵押貸款，貸出金票，値十押七。貸出款項時，金票二元七八角方可換大洋一元，償還時金票之价已与現大洋相等，“故此次所受金票之害，実甚于羌帖十倍”。[29] 1921年時，日方将大連特産交易所用幣改為朝鮮銀行券，将金銀比价変動的損失転移到中国商家的頭上，遭到華商及中国経紀人的抵制。

第四，国際金融形勢変遷使東北地区幣制的混乱状況雪上加霜。19世紀，世界各国随着開風气之先的英国紛紛改用金本位制，而我国仍以銀為貨幣。東三省各地的対外貿易額逐年増加，在対外貿易中多使用盧布或金票結算，拡大了金本位貨幣的使用。一戦時，欧戦各国紛紛以金易銀来華購買物資，国内銀价

29) ≪各埠金融及商況·哈爾浜≫，≪銀行周報≫，5巻3号，1921年1月18日。

上涨。在奉小洋擠兌風波中，有日本人与中国銭商勾結，用朝鮮銀行金票兌成小洋票，再兌成現小洋，私運入大連熔為銀錠，流通中的現小洋就更顕欠乏了。[30] 上世紀20年代世界銀价下降，対金票在東北的流通也起了推波助瀾的作用。

綜上所述可見，奉系時期東三省幣制混乱的原因既有内因，也有外因。幣制与金融息息相関，幣制混乱在一定程度上又加深了金融的動蕩不安。当時東三省的統治者是以張作霖為首的奉系軍閥，雖然采取了一些安定金融的措施，但都収效甚微，東三省幣制的混乱状況在整体上没有得到改善，成為当時中国幣制状況混乱的一个典型縮影。

투고일 : 2012년 5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2년 5월 21일, 게재확정일 : 2012년 5월 31일

www.kci.go.kr

30) ≪中華民国貨幣史資料(第一輯)≫, 第1023頁。

참 고 문 헌

孔祥賢·張毓昌, 1988,「十月革命后日本在吉黑地區的金融擴張和中國当局的對策」,『民國檔案』3기.
孔經緯, 1986,『東北經濟史』, 四川人民出版社.
徐逐實, 1928,「東三省之幣制与金融」,『銀行周報』, 12권 3호. 銀行學會.
孫敏, 2001,「清達桂將軍批文及永衡官帖始衰之因淺述」,『中國錢幣』, 中國錢幣博物館; 中國錢幣學會.
吳振强・尙思丹等, 1992,『東三省官銀号奉票』, 遼沈書社.
連浚造, 1971,『東三省經濟實況攬要』, (台)傳記文學出版社.
遼宁省檔案館編, 1990,『奉系軍閥檔案資料匯編』 第一册, 江蘇古籍出版社・地平線出版社.
長春中國銀行, 1920,「東三省通貨調查報告書(四)」,『銀行周報』4권 40호, 銀行學會.
長春中國銀行, 1920,「東三省通貨調查報告書(二)」,『銀行周報』4권 37호, 銀行學會.
張福全, 1988,『遼宁近代經濟史』, 中國財政經濟出版社.
靜如, 1929,「東三省私帖調查記(二)」,『銀行周報』13권 29호, 銀行學會.
呈東北政務委員會, 1931,『東三省金融整理委員會報告書』, 呈東北政務委員會.
仲廉, 1932,「吉林官帖之研究(九)」,『銀行周報』16권 17호, 銀行學會.
仲廉, 1932,「吉林官帖之研究(六)」,『銀行周報』16권 14호, 銀行學會.
仲廉, 1932,「吉林官帖之研究(二)」,『銀行周報』16권 4호, 銀行學會.
仲廉, 1932,「吉林官帖之研究(八)」,『銀行周報』16권 16호, 銀行學會.
中國人民銀行總行參事室編, 1986,『中華民國貨幣史資料』第一輯, 上海人民出版社.
中國第二歷史檔案館, 1988,「民國初年日本制造奉天擠兌風潮檔案選」,『歷史檔案』3기.
獻可, 1958,『近百年來帝國主義在華銀行發行紙幣概况』, 上海人民出版社.

www.kci.go.kr

■ Abstract ■

The Monetary System in Northeast China in the Fengxi Period

Dong, Xing

The monetary system in northeast China is very complicated in the Fengxi period. It was also a typical representative region of the Chinese chaos monetary system at that time. The currency issued by Chinese financial institutions could be divided into two kinds: silver standard and copper standard, each having hard currency kind and paper currency kind, circulating in different areas. Furthermore, there are many kinds of small amount currencies issued by private businessmen, also circulated in a limited area. For foreign currencies, the mainly circulation kinds in northeast China were Russian currency and Japanese currency. They could also be divided into the silver standard kind and the gold standard kind. The main reasons for the chaos of the monetary system in northeast China in that period could be analyzed as following: the mixed using of metallic currency and paper money in the same time plus the mixed using of silver dollar and tael; the power of currency issue was very dispersed and excessive issue; the invasion of the foreign currency system;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ituation's changes and influences and so on.

www.kci.go.kr

Key words : the monetary system; Northeast China Fengxi period